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Γ편 연구

— 제 4 장을 중심으로 —

이 참 우

| ● 목 | 차 ● |
|-----------|----------|
| I. 머리말 | V. 논증 4 |
| II. 논증 1 | VI. 논증 5 |
| III. 논증 2 | VII. 맺음말 |
| IV. 논증 3 | |

I. 머리말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Γ편 제 4 장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3 장에서 모순율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를 이야기한 후 4 장에서 모순율의 원칙을 몇 개의 논증으로써 변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순율이란¹⁾ 가장 확실한 원칙(*bebaiotatē archē*)으로서 그것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틀릴리가 없다(*diapseuthēnai adunaton*):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τυωριμω-ράρος*) 것으로 가정되지 않는다(*anupothetos*)²⁾ 것이다.

모순율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순율은 간접적으로는 증명이 가능한데, 그 방식은 모순율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자들의 주장을 논박하는 방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자면 모순율의 증명은 ‘논박을 통한 증명(*apodeixai elengktikōs*)’이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오직 자신의 전제를 가지고서 모순율의 타당성을 반대자에게 입증시키려 한다면, 반대자는 당장에 *petitio principii* 를 지적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증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자의 주장을 가지고서, 그 주장의 부당성을 보여줌으로써 모순율의 당위성을 입증하려 한다. 다시 말해 “모순율은 옳지 않다”라는 반대자의 주장을 논박해 보임으로써 모순율이 가장 확실한 원칙임

주 1) 1005b 8-18.

2)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가정(*hupothesis*)과 원칙(*archē*)은 다른 것이다. 가정은 증명가능한 것이지만 원칙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필연성을 갖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Posterior Analytics I 10.76b23-34 참조. 그리고 I 2. 72a14-18 참조.

이 창 우

을 논증하려 한다.³⁾

이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박의 전략은 반대자의 주장이 어떤 구체적인 것(ti hōrismenon)를 결국엔 뜻하지 못함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순율에 대한 논증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모순율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요한 조건 하나를 언급한다. 그 조건은, 모순율을 말할 때는 시간의 흐름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똑같은 것이 바로 그것에 있어서 그리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⁵⁾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입증하려는 모순율이 “시간의 흐름 내에 있는 사태”의 법칙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의 전제들이 지적된 뒤에 대략 일곱개의 논증(혹은 논박)이 동원되어 모순율의 당위성이 보여진다. 필자는 이 중에서 두번째 논증부터 여섯번째 논증까지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그리고 일곱번째 논증은 지면의 할당면에서 볼 때나 논증구조면에서 볼 때나 분석대상이 되기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에선 제외되었다. 그리고 편의상 필자는 두번째 논증을 ‘논증 1’, 세번째 논증을 ‘논증 2’, 네번째 논증을 ‘논증 3’, 다섯번째 논증을 ‘논증 4’ 그리고 여섯번째 논증을 ‘논증 5’라고 명명하겠다. 그리고 필자는 이 논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 현대적 분석틀에 의존했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주석으로서는 Kirwan의 책에,⁶⁾ 그리고 번역으로서는 Tricot의 책에⁷⁾ 많은 도움을 얻었음을 또한 밝혀 둔다.

I. 논증 1

II.1. 1006a31-b13

반대자의 주장에 대해 논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구체적인 것을 의미함은 곧 하나를 의미함인데, 반대자는 하나를 의미하지 않기에 반대자의 주장은 ‘말(logos)’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자를 논박한다. 이 문단의 논증구조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a) 만약에 ‘man’⁸⁾이 뜻하는 바가 ‘two-footed animal’이라면, ‘man’이 하나를 의미(to hen sēmainein)하기 위해서는 반드시⁹⁾ (b) 어떤 man의 경우에 대해서도 (c) ‘to be a man’은 ‘to be a two-footed animal’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문장 (b)와 (c)는 ‘man’이라는 이름을 갖다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은 거기에 ‘두

주 3) 1006a16-18.

4) 1006a19-24.

5) 1005b18-22.

6) C. Kirwan, *Aristotle's Metaphysics*, Oxford, 1971.

7) J. Tricot, *Metaphysique*, Paris: Vrin, 1933.

8) to authrōpos.

9) if and only 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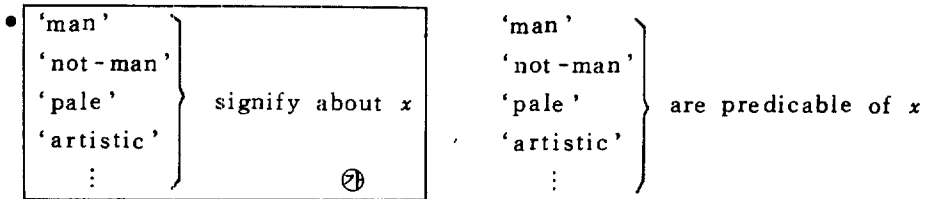
발 달린 동물'이라는 의미도 갖다 붙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 이상 되어도 상관없음을 부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⁰⁾ 단 이름이 의미하는 바의 숫자는 제한되어야지 무한해서는 안된다. 만약 반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면 거기에는 말(logos)다운 말-구체적으로는 명제다운 명제-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자에게, 말을 할 때는 하나의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도록 말을 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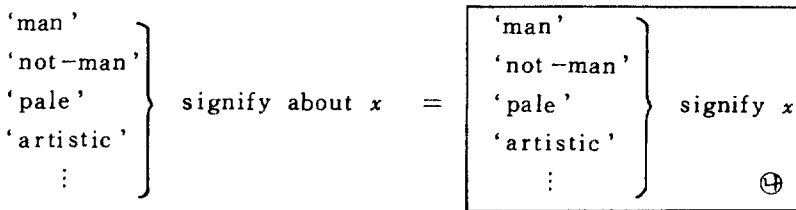
II.2. 1006b13-28

이 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를 의미함(signify one thing)'¹¹⁾과 '하나에 관해서 의미함(signify about one thing)'¹²⁾은 구별되어야 할 것을 지적한다. '...관해서 의미함(sēmainein kata)'은 무엇인가? 필자의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술어로 될 수 있음'이다.¹³⁾ 이를 예를 들어가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signify about x = be predicable of x



그런데 만약 반대자의 주장대로 'signify about x '와 'signify x '가 동일한 것이라면 ㉞에 있어서 'signify about x ' 대신 'signify x '를 집어 넣어줘도 무방할 것이다. 즉,



가 허용될 것이고, 반대자는 ㉞에 근거하여 'man'이나 'pale'이나 'artistic'이나 'not-man'이나, x 의 술어가 될 수 있다는 조건만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모두가 똑같이 x 를

주 10) 1006a34.

11) sēmainein hen

12) sēmainein kata henos.

13) 이러한 정식화 자체가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문맥상으로 'sēmainein kata'의 뜻을 필자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논증들을 고찰해 볼 때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이창우

의미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반대자는 x 의 술어가 될 수 있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서 하나의 x 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signify’와 ‘signify about’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깔고서 ‘to be a man’과 ‘not to be a man’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반대자의 논변을 분석해 보자. 1006b22-28의 반대자의 논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¹⁴⁾

- (1) ‘man’ and ‘not-man’ do not signify different things(b23);
- (2) ‘to be a man’ and ‘not to be a man’ do not signify different things (b24);
- (3) ‘to be a man’ is ‘to be a not-man’¹⁵⁾ (b25);
- (4) ‘to be a man’ and ‘to be a not-man’ are one thing (b25);
- (5) ‘to be a man’ and ‘to be a not-man’ have one formula¹⁶⁾ (b26).

여기에서 (3), (4), (5)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위 문장들의 함축관계는 ‘(1)→(2)→(3)’(혹은 ‘(1)→(2)→(4)’ 혹은 ‘(1)→(2)→(5)’)¹⁷⁾ 일까? 즉 텍스트에 실려있는 순서 그대로가 함축관계의 순서일까?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장 (4)에 있어, 즉 b25에 있어 ‘gar’는 ‘if’의 뜻이고 문장 (3)에 있어, 즉 b25에 있어 ‘hōste’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위 문장들의 함축관계는 ‘(3)→(1)→(2)’(혹은 ‘(4)→(1)→(2)’ 혹은 ‘(5)→(1)→(2)’)¹⁷⁾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1)에서 (2)로의 함축이다. 그렇게 될려면 stēresis의 문장에서 apophasis의 문장이 함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반대자의 논변을 도와 주기 위하여 이 함축관계를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문장 (1)과 (2)를 더 분석해 보자. 문장 (1)은

- (1) it is true both that it is a man that it is a not-man
 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고 문장 (2)는
- (2) it is true both that it is a man and that it is not a man
 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1)은 다시

주 14) Kirwan, *ibid.*, p.97 참조.

15) ‘not to be a man(mē einai anthrōpō)’와 ‘to be a not-man(einai mē anthrōpō)’은 구별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전자는 apophasis(부정)에 해당하고 후자는 stēresis(결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문장 ‘Some x is not an ox’와 문장 ‘Some x is an not-ox’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F’를 essential predicate variable(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말하자면 ousia의 variable)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자의 문장, 즉 apophasis에 해당하는 문장은 ‘ $\exists x \sim Ox$ ’로 나타내어지고 후자의 문장, 즉 stēresis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은 ‘ $\exists x \exists F(Fx \ \& \ \sim Ox)$ ’로 나타내어 진다. 1004a9-25 참조. 그리고 *Prior Analytics*, I46.51b25-34와 *On Interpretation*, 19b25-30 참조.

16) 다시말해 동의어 관계이다.

17) 예를 들어 (1)→(2)라면 (1)이 (2)를 함축함을 나타낸다.

$$(1)'' I(\exists x Mx) = I[\exists x \exists F(Fx \& \sim Mx)] = T^{18)}$$

로 표현되고 (2)'는 다시

$$(2)'' I(\exists x Mx) = I(\exists x \sim Mx) = T$$

로 표현된다. 그리고 (1)''와 (2)''에 의해서

$$(6) I[\exists x \exists F(Fx \& \sim Mx)] = I(\exists x \sim Mx) = T$$

이 성립될 것이다. 그렇다면 (1)이 (2)를 함축하려면 혹은 (1)'가 (2)'를 함축하려면 또 혹은 (1)''가 (2)''를 함축하려면 (6)에서 ' $\exists x \exists F(Fx \& \sim Mx)$ '가 ' $\exists x \sim Mx$ '를 함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기계적으로 증명된다:

Formalization : $\exists x \exists F(Fx \& \sim Mx) \vdash \exists x \sim Mx$

Proof :

| | |
|--|--------------------------|
| 전제 1. $\exists x \exists F(Fx \& \sim Mx)$ | |
| 전제 2. $\exists F(Fa \& \sim Ma)$ | |
| 3. $\exists F(Fa) \& \exists F(\sim Ma)$ | 2 |
| 4. $\sim Ma$ | 3&E |
| 5. $\exists x(\sim Mx)$ | 4EI |
| 6. $\exists x(\sim Mx)$ | 1, 2, 5EE ¹⁹⁾ |

그러므로 *sterēsis*의 문장으로부터 *apophasis*의 문장이 함축됨이 보여졌다. 반대자들은 위의 사실을 근거로 그리고 (1)과 (2) 혹은 (1)'와 (2)' 또 혹은 (1)''와 (2)''를 근거로,

$$(7) \exists x \exists F(Fx \& \sim Fx)$$

를 주장할 것이다.

II.3. 1006 b28-34

이 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술한 (7)의 문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 문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A) $\Box \forall x (Mx \rightarrow Tx)$ ²⁰⁾
- (B) $\sim \Diamond \exists x (Mx \& \sim Tx)$ ²¹⁾
- (C) $\sim \Diamond \exists x (Mx \& \sim Mx)$ ²²⁾

주 18) I = interpretation, T = truth.

19) $\&E$ = conjunction elimination. EI = existential introduction. EE = existential elimination. 그리고 이 증명과정에서 쓰인 notation은 N. Smith의 것을 따랐다. W.H. Newton-Smith, *Logic*, Routledge & Kegan Paul plc, 1985.

20) b29.

21) b31.

22) b33-4. 그리고 \Box = *anangkē*..., \Diamond = *endechetai*..., $Mx = x$ is a man, $Tx = x$ is a two-footed animal.

이창우

그러나 문장 (7)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장 (C)는 문장 (A), (B)로부터 도출되나? 양화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그리고 양상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고전논리적 논증에 의해서는 다음의 방식으로 이것이 가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 (A)' 사람이려면 두 발 달린 동물이다 ;
- (B)' 사람이면서 두 발 달린 동물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 (C)' 따라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 (C)" 왜냐하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라는 문장은 (A)'에 의하여 '사람이면서 두 발 달린 동물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지만, 이것은 (B)'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단은 앞의 (A), (B), (C)처럼 기호화했을때는 (A)는 (B)를 함축함을 알 수 있지만 (B)가 (C)를 함축하는 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C)는 tautology로서 어떠한 전제도 필요없이 언제나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이다. 이 말은 다음의 증명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전제 1. $\Box \forall x (Mx \rightarrow Tx)$ (A)
2. $\sim \Diamond \sim \forall x (Mx \rightarrow Tx)$ 1
3. $\sim \Diamond \exists x \sim (Mx \rightarrow Tx)$ 2
4. $\sim \Diamond \exists x (Mx \& \sim Tx)$ 3 SI ($\sim (p \rightarrow q) \equiv p \& \sim q$) (B)
5. $\Box \forall x (Mx \rightarrow Mx)$ TI
6. $\sim \Diamond \sim \forall x (Mx \rightarrow Mx)$ 5
7. $\sim \Diamond \exists x \sim (Mx \rightarrow Mx)$
8. $\sim \Diamond \exists x (Mx \& \sim Mx)$ SI²³⁾ (C)

II.4. 1006b34-1007a20

“이것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를 의미하는(sēmainen hen) 답을 해야지 술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가해서 답해서는 안된다. 즉 “이것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려는 사람은 ‘sēmainein’과 ‘sēmainein kata’를 구분해서 답해야지 양자를 동일시한 채로 답을 해선 안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man’은 ‘not-man’을 의미할 수도 있고, ‘being pale’을 의미할 수도 있고 ‘being artistic’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5. 1007a20-33

그러므로 하나를 의미함은 그 하나의 ousia를 의미함이다.²⁴⁾ ‘man’이라는 낱말이 하나를 의미한다고 할 때는 그 하나의 ousia를 의미함이다. 그 하나를 통상 ‘x’라고 부른다면 ‘man’이 x를 의미함은 x의 ousia를 의미함이다. 그러므로 ‘man’은 x의 essen-

주 23) TI = theorem introduction, SI = sequent introduction.

24) 특히 1007a26.

tial predicate²⁵⁾가 되고 ‘not-man’은 contradictory essential predicate가 된다. 그러므로 반대자들은 x 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essential predicates를 동시에 갖다 붙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갖다 붙인다면 반대자들은 *sēnainein kata*의 방식으로서만 말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래서 반대자들에게 있어서는 ‘man’ 혹은 ‘not-man’과 같은 술어들은 ‘pale’ 혹은 ‘artistic’과 같은 술어들처럼 취급된다. 즉, 무수히 많은 coincidental predicates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다시 말해 반대자들은 아래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α) ‘man’ is the essential predicate of x ;
 (β) ‘not-man’ is the contradictory essential predicate of x ;
 (γ) ‘pale’
 ‘artistic’
 ⋮
 (α)’ ‘man’ signifies the ousia of x ;
 (β)’ ‘not-man’ does not signify the ousia of x ;
 (β)'' ‘not-man’ only signifies about x
- } are the coincidental predicates of x ;

II.6. 1007a33-b18

그래서 반대자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sēnainein kata*의 방식으로서만 말해진다면 진술의 길이는 무한히 길어질 것이다(a33-b1).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b1-15). 먼저 두 개 이상의 술어도 서로 主述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Γ 가 X 의 술어일 때 Δ 는 Γ 의 술어가 될 수 없다—단 Γ 와 Δ 가 둘 다 X 의 술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²⁶⁾

III. 논증 2

III.1. 1007b18-1008a7

이 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다 대담한 주장을 펼치는 반대자들의 논변을 분석하고 있다. b24-5의 내용 “그 모순도 정말로 옳다면”과 b34 “긍정이 그에게 타당하면 그

주 25) essential predicate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된다: 문장 ‘F is the essential predicate of x ’는 문장 ‘if x exists, it follows that x is F’를 뜻하는 방식으로.

26)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이런 예외규정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to be artistic is common’이라면 ‘artistic’(Γ 라고 하자)과 ‘common’(Δ 라고 하자)은 ‘Socrates’(X 라고 하자)의 술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Γ 가 X 의 술어이고 Δ 가 Γ 의 술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Δ 가 X 의 술어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Socrates who is artistic is not common’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X 의 술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에 대해 주어와 되고 술어가 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제1의 주어, 즉 다른 주어에 대해 주어와 될 수 없는 주어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것의 술어가 되어야 한다. Kirwan, *ibid.*, p. 101 참조.

이창우

것의 부정도 필연적으로 타당하다” 라는 구절과 1008a2 “부정이 타당하면 그것의 긍정도 타당하다”의 구절은

(¬) $\forall x \forall F (Fx \leftrightarrow \sim Fx)$

의 주장으로 해석된다.²⁷⁾

그리고 Protagoras의 주장은

(¬) $\forall p [(\text{someone believes that } P) \rightarrow P]$ ²⁸⁾

이기 때문에

(d) $\forall x \forall F [(\text{one man believes that } Fx) \& (\text{another man believes that } \sim Fx)]$

를 전제한다면, (¬)과 (d)으로부터 b23-25의 주장

(e) $\forall x \forall F (Fx \& \sim Fx)$

이 결과되어질 것이다.²⁹⁾ 그리고 이 (e)은 II.2.에서 보여진 (7)의 주장, 즉 ‘ $\exists x \exists F (Fx \& \sim Fx)$ ’의 주장보다 더 강력한 주장이다.

III.2. 1008a2-7

따라서 반대자가 모순율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한에 있어서 반대자들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i) Socrates is a man

(ii) Socrates is not a man

의 문장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i)과 (ii)를 각각 부정한

(i)' Socrates is not a man

(ii)' Socrates is not not a man

의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때 (i)과 (ii)를 연언으로 결합한

(iii) Socrates is a man and not a man

의 문장은 반대자들의 ‘ $\exists x \exists F (Fx \& \sim Fx)$ ’의 원칙에³⁰⁾ 부합하는 문장이므로 그 진리치는 참이 된다. 이 때 (iii)을 부정하는 문장

주 27) Kirwan, *ibid.*, p.102 참조.

28) P = proposition.

29) 그러나 (e)은 (¬)으로부터도 연역가능하다.

$\forall x \forall F (Fx \leftrightarrow \sim Fx) \vdash \forall x \forall F (Fx \& \sim Fx)$

전제 1. $\forall x \forall F (Fx \leftrightarrow \sim Fx)$ 2. $\forall F (Fa \leftrightarrow \sim Fa)$ 1VE

3. $Aa \leftrightarrow \sim Aa$ 2VE

4. $(Aa \rightarrow \sim Aa) \& (\sim Aa \rightarrow Aa)$ 3↔E

5. $(\sim Aa \vee \sim Aa) \& (Aa \vee Aa)$ 4SI 6. $Aa \& \sim Aa$ 5

7. $\forall F (Fa \& \sim Fa)$ 6VI 8. $\forall x \forall F (Fx \& \sim Fx)$ 7VI

참고 : VE = universal elimination, VI = universal introduction

↔ = bi-conditional elimination.

30) 혹은 ‘ $\forall x \forall F (Fx \& \sim Fx)$ ’의 원칙에

(iii)' Socrates is not a man and not not a man

는 반대자들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치는 거짓이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iii)'는 (i)' 과 (ii)'를 연언으로 결합한—그리고 반대자들의 원칙에 부합하기에 그 진리치가 참이 되는—문장

(iv) Socrates is not a man and not not a man

과 그 형태가 똑같다. 그러므로 반대자들은 똑같은 문장에 대해 서로 다른 진리치를 동시에 주장해야 하는 dilemma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공격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문장 'p & ~p'를 부정한 문장은 '~p ∨ ~~p'가 된다. 그러므로 (iii)을 부정하는 문장은 (iii)'가 아니라

(iii)'' Socrates is not a man or not not a man

이다. 그리고 반대자들은 (iii)''의 진리치에 대해선 거짓을 할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자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공격은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it is true that $\exists x \exists F(Fx \& \sim Fx)$ '가 참이라면 문장 'it is false that $\exists x \exists F(Fx \& \sim Fx)$ '도 참이다³¹⁾:

혹은, 문장 ' $\exists x \exists F(Fx \& \sim Fx)$ '가 참이라면 문장 ' $\exists x \exists F(Fx \& \sim Fx) \& \sim \exists x \exists F(Fx \& \sim Fx)$ '도 참이다³²⁾

IV. 논증 3 (1008a7-30)

이 문단은 논증 1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signify x'와 'signify about x'가 동일시된다면 진술은 무한히 길어질 것이다. 즉 x라는 주어에 대해 술어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들이 무한정으로 x의 술어로 구성된 다음의 문장

'x is a man—and--not a man—and--pale—and--not pale……'

을 반대자들은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장이 나오게 된 것은 'signify'와 'signify about'를 동일시한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signify about'와 'signify'를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후자는 주어의 ousia를 signify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대자에게 지적해준 후 이제 말을 할 경우 "분리해서 말을 할 것"을 지적해준다. 따라서 'signify x'란 '그 x의 essential predicate를 다른 술어와 분리해서 x에 대해 술어로 갖다붙임'이다.

주 31) 혹은 문장 'it is true that $\forall x \forall F(Fx \& \sim Fx)$ '가 참이라면 문장 'it is false that $\forall x \forall F(Fx \& \sim Fx)$ '도 참이다.

32) 혹은 문장 ' $\forall x \forall F(Fx \& \sim Fx)$ '가 참이면 문장 ' $\forall x \forall F(Fx \& \sim Fx) \& \sim \forall x \forall F(Fx \& \sim Fx)$ '도 참이다.

이 경우

V. 논증 4

V.1. 1008 a34-1008 b2³³⁾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다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

‘if I(S) = T, then I(∼S) = F’³⁴⁾이거나 ‘if I(∼S) = T, then I(S) = F’이지, ‘if I(S) = T, then I(∼S) = T’이거나 ‘if I(∼S) = T, then I(S) = T’일 수 없다.

V.2. 1008b2-12

모든 사람의 판단은 동시에 참이고 거짓일 수 없다. 즉 사람이기만 하면 그리고 판단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그 판단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에 대해 동시에 ‘그렇고 그렇지 않음’의 술어를 갖다 붙이는 자, 다시 말해 ‘I(S) = I(∼S) = T’임을 주장하는 자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식물(phuton)에 가깝다.

VI. 논증 5 (1008b12-31)

반대자들의 주장이 정말로 타당하다면 실제생활에서도 그들의 주장은 적용되어야 한다. 그들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문장 ‘p & ∼p’에 있어서 ‘p’는 이론적 명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개입의 명제도 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나쁜 일이면서 동시에 나쁜 일이 아니다”는 주장을 반대자들은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자의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자들 자신들은 물론 아무도 자의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반대자들의 주장은 비일관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타당하지가 않다.

VII. 맺음말

이상과 같이 살펴 볼 때 모순율은 II.2. 의 (7) ‘ $\exists x \exists F(Fx \ \& \ \sim Fx)$ ’과 모순대당관계에 있는, 그리고 III.I. 의 (㉒) ‘ $\forall x \forall F(Fx \ \& \ \sim Fx)$ ’와 반대 관계에 있는,

$$(가) \ \forall x \forall F \sim (Fx \ \& \ \sim Fx)$$

로 정식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가)에 있어서 negation을 괄호안으로 풀어주면 다음과 같이 배중율이 정식화된다 :

$$(나) \ \forall x \forall F (Fx \ \vee \ \sim Fx)$$

주 33) 1008 a30-34 의 내용은 III.2.1008 a2-7 의 내용(반대자들의 dilemma)과 반복되므로 생략한다.

34) S = sentence.

그리고 (가)로부터 SI³⁵⁾에 의해 혹은 (나)로부터³⁶⁾ 다음과 같이 동일율이 정식화된다:

$$(대) \forall x \forall F (Fx \rightarrow Fx)$$

그러므로 (가), (나), (다)로부터 동일율, 모순율, 배중율은 논리적으로 동치임이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문제점 및 과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이 글은 형이상학 4장의 분석에만 치중했을 뿐 다른 장 혹은 다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 관련된 논의없이 진행되었다. 모순율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제대로 재구성할 수 있기 위해선, 아리스토텔레스의 *ousia* 論에 대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이해를 아울러 필요로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Jaeger, W. (ed.), *Aristotelis Metaphysica*, Oxford, 1957.
- Ross, W.D. & Minio-Paluello, L. (ed.), *Aristotelis Analytica Priora et Posteriora*, Oxford, 1964.
- Tricot, J. (tr.), *Metaphysique*, Paris: Vrin, 1933.
- Kirwan, C. (tr. & notes), *Aristotle's Metaphysics*, Oxford, 1971.
- 서광사 편집, *The Selected Works of Aristotle*, 1982.
- Smith W.H. Newton, *Logic*, Routledge & Kegan Paul, 1985.

주 35) $\sim (P \& \sim q) \equiv p \rightarrow q$.

36) $\sim p \vee q \equiv p \rightarrow q$.